

구라보의 6개 공장 - 제로 이미지를 달성

구라보는 2008년 5월 30일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로 이미지션(Zero emission : 어떤 산업에서 기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사용케 하여, 지구 전체로서 폐기물을 zero로 만들려는 계획)’에서 초년도(初年度)에 6개 공장이 제로 이미지션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도 중에는 10개 공장 전부가 이 목표를 달성토록 할 예정이다.

구라보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의 전 폐기물 중에서 타사에서 재이용되는 비율 즉 재자원화율(再資源化率)이 98%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제로 이미지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 관리 기준을 스타트(start)시켜 초년도부터 6개 공장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번에 제로 이미지션의 목표를 달성한 공장은, 방적의 오카야마(岡山) 공장, 방적·직포·염색가공의 쓰(津) 공장, 플라스틱 제조의 스소노(裾野) 공장의 6개 공장들이다. 앞으로는 2009년도 중에 전체(全體) 10개 공장에서 제로 이미지션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구라보는 이 활동이 궤도에 오르고 나면 재자원화율의 기준을 99%를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는 100%를 달성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